

“SRF 나주 반입 저지에 힘모은다”

법원 오늘 행정소송 선고...나주SRF 시설 가동 여부 촉각

전력노협 “나주SRF 전국혁신도시 문제로 이슈화 할 것”

전국혁신도시 노조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전력노협)가 광주권 쓰레기 처리장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나주 반입 저지에 힘을 모은다.

앞서 공공기관 노조는 지난 8일 나주혁신도시에서 노조 의장단 회의를 열고 전력노협을 출범시켰다.

의장단은 각 혁신도시 별 정주여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전력노협의 첫 번째 과제로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 해결을 선정했다.

전력노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SRF 나주 반입 저지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투쟁해 나



가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하나된 목소리는 나주SRF 발전소 사업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발

전소 가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력노협은 나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최악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1일 440t에 달하는 SRF를 태울 경우 혁신도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력노협은 자신들이 배출한 1일 4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이웃 지자체로 모두 떠넘기는 광주시 행정수장 등을 대상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가 전개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사업개시 신고 관련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주일 새 1만5000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시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장재영 전력노협 의장은 “SRF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광주시를 대상으로 투쟁을 계속 펼치고, 향후 반드시 환경부와 광주시가 참여하는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력노협에는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충청, 강원, 광주전남 등 전국 9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참여했다.

김민정기자

여수소방,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소방력 지원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이달 1일부터 백신접종이 완료될때까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소방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백신접종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접종센터로 지정된 여수흥국체육관에 직원 3명(간호사 2, 응급구조사 1)과 구급차 1대를 배치했다.

배치된 직원들은 여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과 접종후 이상반응을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내소접종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센터 뿐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센터 운영일정에 따라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창수 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돼, 지역사회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무안소방, 이동안전체험차량배치찾아가는체험교실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15일부터 신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무안소방서에 운영 한다.

이번 배치된 이동안전체험차량은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이동안전체험차량으로 전남소방에서 위탁운영 방식으로 무안소방서에 배치·운영한다. 무안소방서는 봄철 특수시책 '무안소방서와 롯데아울렛과 함께하는 놀리와 봄 체험한 봄 안전한 봄 행사' 일환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남양 롯데아울렛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안군 야영장에 찾아가는 체험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안전체험설비를 장비한 8.5톤 특장차량으로 ▲VR소화기 체험 ▲지진사고 체험 ▲농연시 미로탈출 ▲간이안경기 체험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구축 하고 있다.

무안소방서 서장 박원국은 “어린이 등 도민들에게 각종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재난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경찰, 서민경제 침해 상습공사대금 편취 피의자구속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서민경제침해사범의 대표적 사례인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범에 대하여 책임수사를 통해 신속한 증거확보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속(4. 8)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일대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씨 등 24명에게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44회에 걸쳐 8억 9,79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경제사범에 대하여 책임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경찰,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박인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지난 12일 벌교초등학교, 14일 보성군청앞사거리 및 보성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 및 교육청 직원, 교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성경찰은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요라는 멘트와 함께 마스크, 연필, 물티슈 등을 전달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 및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보성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위드유(With You) 해주세요!’ 슬로건 아래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떡과 요쿠르트를 준비하였다.

보성=김복순기자

“한우 대금 5% 상납하라”...납품 갑질한 GS리테일, 과징금 54억

SSM 업체 불공정 행위 과징금 중 '최대'

판매 장려금 '353억여치' 부당하게 떼고

직매입 계절상품 56억여치 멋대로 반품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스(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준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SSM 업체 불공정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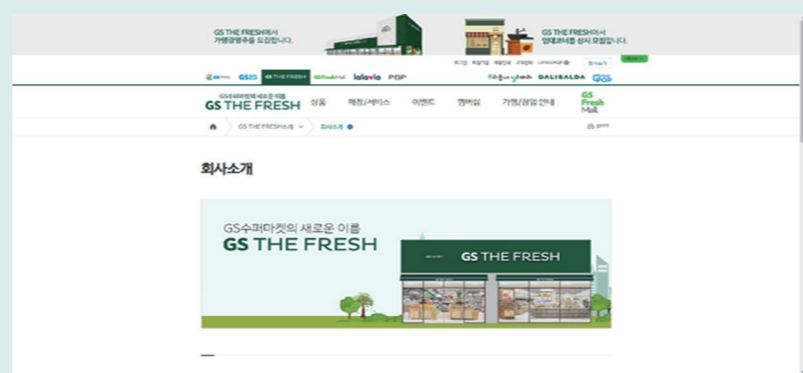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이준현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 유형이 한정적인데, GS리테일의 이번 사안은 그

런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임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GS리테일의 법 위반 행위는 ▲발주 장려금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부당 반품 ▲파견 조건 약정 없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미약정 판매 장려금·판매 촉진비 수취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체에 주는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떼갔다. 총 38억8500만원여치다. 이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체 이익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기본 장려금’이다.

이준현 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GS리테일과의 거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런 부당한 행위에 이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2018년 4월 직매입 거래하는 납품업체 128곳으로부터 받은 ‘베베도’ 등 계절상품 113만1505개(56억여원여치)를 부당 반품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137곳에는 140만6689개(32억여원여치)를 ‘업체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해 돌려보냈다. 사전에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었다.

2015년 5월~2018년 4월에는 자사의 리뉴얼·신규 오픈 점포에서 납품업체 46곳의 종업원 1073명을 조건 약정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2016년 1월~2018년 4월에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3억원을 납품업체 146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고, 축산 납품업체 26곳에 판촉비를 떠넘겼다.

2017년 6월~2018년 3월에는 납품업체 87곳과 직매입 거래 93건 등 계약을 맺으며 관련 서류를 최대 25일이나 늦게 주기도 했다. 이런 행위 역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